

慈藏傳來 佛舍利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 검토

한 정 호*

〈목 차〉

- I. 머리말
- II. 자장율사의 사리전래와 봉안처
- III. 불사리의 친견과 神異
- IV. 자장전래 불사리 관련 조형
- V. 맺음말

국문요약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전래한 불사리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석가의 진신사리 가운데 봉안처가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전래 이후 전세과정에 대한 문헌자료가 풍부하여 우리나라 불사리신앙과 불교미술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자장전래 불사리 관련 『삼국유사』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내용의 일부는 후대에 윤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자장이 전래한 사리의 종류는 원래 100매의 진신사리가 중심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佛頭骨과 佛牙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윤색의 배경으로는 9세기 중반부터 13세기에 걸쳐 佛頂骨과 佛牙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리신앙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통도사 계단에 봉안된 진신사리 친견과 관련된 여러 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도사 계단의 蓋石은 원래 개폐가 용이한 구조였으며, 사리를 꺼내서 수계의식을 거행한 사례도 확인된다. 그리고 의식과 관련된 기록을 단서로 통도사 계단을 조사한 결과 원래 계단 위로 올라가기 위한 층계가 5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울산 태화사지 인근에서 발견된 <태화사지 십이

*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지상 사리탑>은 일반 석종형 부도와 달리 구조적으로 사리공의 개폐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통도사 계단의 사리친견 사례로 본다면 태화사지 사리탑 또한 구조적으로 진신사리를 봉안했던 사리탑일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통도사 계단 石蓋의 형태는 13세기 후반까지 가마솥(釜, 鑊) 모양으로 묘사되다가 14세기 후반 이후에는 현재의 모습과 같은 石鍾으로 표현이 바뀐다. 이를 통해 통도사 계단은 14세기에 이르러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으며, 중수 이전 개석의 형태는 감은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치와 유사한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형태의 근원과 명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감은사 사리기는 『계단도경』에 묘사된 계단의 형태를 사리기로 변용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慈藏, 眞身舍利, 佛牙, 佛頭骨, 통도사 戒壇, 사리장엄구, 삼국유사

I. 머리말

사리는 부처의 진신을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예배대상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불교도들의 숭배가 이어져 왔다. 그리고 사리의 유포와 전래는 불교의 전파와 정통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아쇼카왕의 팔만사천탑 건립과 고구려 요동성에 아육왕탑이 존재했다는 고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각국의 불교전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佛敎의 初傳과 동시에 사리전래에 관한 기록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신라의 사리 전래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진흥왕 10년(549) 봄 양나라에서 사신과 유학승 覺德 편에 사리를 보내와 왕이 백관들로 하여금 흥륜사 앞길에서 맞이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후 37년(576) 봄에는 安弘法師가 수나라 유학 후 서역승 毗摩羅 등과 귀국할 때 『능가경』, 『승만경』과 더불어 불사리를 모셔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이밖에 문성왕 13년(851)에 견당사 元弘이 佛牙를 가져와 국왕이 교외까지 나가서 맞이했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사리 전래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산견된다. 그러나 이들 기록은 불사리의 전래자와 전래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사리의 봉안처나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신라에 전래된 불사리 가운데 봉안처와 이후 행방에 대한 단서가 전하는 사례는 선덕여왕 12년(643)에 당나라에서 귀국한 慈藏律師 전래 사리가 유일하다. 당시 자장율사가 전래한 진신사리는 황룡사 9층탑과 태화사탑, 그리고 통도사의 戒壇에 나누어 봉안하여, 이들 사찰은 기록으로 입증되는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찰로서의 사격을 지니게 된다. 이들 세 사찰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찰은 통도사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통도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찰로서 우리나라 佛寶寺刹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자장전래 불사리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시대의 기록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불사리신앙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자장율사의 귀국은 신라불교미술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기록에 따르면 자장율사는 본국에 아직 佛經과 불상이 구비되지 못했으므로 大藏經 1부와 여러 가지 幡幢·花蓋 등 福利가 될 만한 것을 청해서 모두 싣고 돌아왔다고 전한다. 자장의 귀국 후 주석했던 분황사에는 현존하는 당간지주 가운데 형식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지목되는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이는 바로 자장이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幡幢·花蓋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장이 전래한 불사리는 황룡사 구층탑과 태화사 탑이 건립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단이라는 새로운 탑과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장전래 불사리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불사리신앙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기록에 간접적으로 언급된 계단과 사리장엄구 등 불교미술품에 대해서도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자장율사의 사리전래와 봉안처

『삼국유사』에 언급된 자장율사 관련 기록은 『속고승전』의 자장전을 근간으로 다양한 자료가 뒤섞여 있다. 그러나 『속고승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2차사료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삼국유사』의 기록은 일연에 의해 채록될 때까지의 600여 년이라는 시차를 갖는다.¹⁾ 따라서 자장전래 사리에 관한 기록도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을 중심으로 후대에 윤색된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유사』에 언급된 자장이 귀국할 때 지니고 온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大藏經 1부와 여러 가지 幡幢·花蓋 등 福利가 될 만한 것’, 또는 ‘황제가 준 佛經·佛像·袈裟·幣帛 등’으로 사리를 포함하지 않은 기록이 보인다. 이는 『속고승전』의 내용을 참조한 기록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리를 포함한 기록으로는 ‘袈裟와 舍利’, ‘오대산에서 받아 가져온 사리 100과’와 같이 간략하게 언급한 기록과 ‘비라금점가사 한 벌과 佛鉢 하나와 佛頭骨 한 조각’, ‘佛頭骨과 佛牙, 불사리 100과, 부처님이 입었던 緋羅金點袈裟 한 벌’ 등으로 상세하게 언급한 기록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밝힌 기록은 전후소장사리조의 기록으로 여타 기록에 비해 佛頭骨과 佛牙가 추가되었다.

한편 자장율사와 관련된 국내 최고의 기록으로 872년에 제작된 <황룡사찰주본기>에는 자장의 사리전래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자장이 귀국할 때 불사리 100과를 비롯하여 불두골과 불아를 모셔왔다면 왜 찰주본기에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황룡사 탑에 귀중한 불두골과 불아를 봉안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불두골과 불아는 사리신앙의 변화에 따라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¹⁾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 76, 한국사연구회, 1992, 3~6쪽.

먼저 1차사료로 볼 수 있는 『속고승전』의 자장전에 실린 사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다.

- ① 그는 또 다른 사탑 10여 곳을 조성하였는데 한 곳을 지을 때마다 온 나라가 함께 승양 하였다. 이에 자장은 곧 “만약 내가 지은 절에 영험이 있다면 기적이 나타날 지어다”라고 발원하자 문득 감응이 일어나 두건과 발우에 사리가 나타났는데 대중이 悲慶하여 보시하니 그 쌓이는 재보가 산더미 같았다. 이에 그는 곧 그들을 위하여 계를 내려주었으며, 이로써 선을 행하는 사람이 드디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²⁾

『속고승전』의 자장전에는 자장율사가 본국에 사리를 전래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가 발원한 사찰의 건립에 앞서 감응에 따라 두건과 발우에 사리가 나타났다는 대목은 사리 전래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자장에 앞서 중국에 유학했던 覺德과 安弘이 불사리를 전래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국에 경전과 사리를 전래하는 것은 求法僧의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학승들에 의한 사리전래는 보편적인 사항으로 자장율사가 신라에 불사리를 전래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어서 자장전래 사리의 출처에 대해서는 다음 ②의 기록을 근거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수되었다고 전한다.

- ② 仁平 3년 丙申, 곧 貞觀 10년(636)에 왕명을 받아 제자 實 등 승려 10여 명과 더불어 서쪽 당나라로 들어가서 淸涼山에서 聖人을 뵈었다. 이 산에는 曼殊大聖의 塑像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서로 “帝釋天이 工人을 데리고 와서 조각해 만든 것이다.”라고 서로 전해 말했다. 자장은 소상 앞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니, 꿈에 소상이 그의 이마를 만지면서 梵語로 된 偈를 주었는데 깨어 생각하니 알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이상한 스님이 오더니 이것을 해석하여 주고(이 이야기는 이미 황룡사 塔篇에 나와 있다) 또 말하기를, “비록 만 가지 가르침을 배운다 해도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하고는 袈裟와 舍利 등을 주고 사라졌다(자장은 처음에 이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唐僧傳에는 기록되지 않았다).³⁾

2) “...又別造寺塔十有餘所 每一興建 合國俱崇 藏乃發願曰 若所造有靈 希現異相 便感舍利 在諸巾鉢 大衆悲慶 積施如山 便爲受戒 行善遂廣...”(『續高僧傳』권24, 慈藏 T.50, 639下)

3) “...仁平三年丙申歲(卽貞觀十年也)受勅 與門人僧實等十餘輩 西入唐 謁淸涼山 山有曼殊大聖塑相 彼國相傳云 帝釋天將工來彫也 藏於像前禱祈冥感 夢像摩頂授梵偈 覺而未解 及旦有異僧來釋云(已出皇龍塔篇) 又曰雖學萬教 未有過此 又以袈裟舍利等付之而滅(藏公初匿之 故唐僧傳不

위 기록의 말미에 일연은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가사와 사리를 전수한 사실을 자장이 숨겼기 때문에 『속고승전』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부기하여 자장의 불사리전래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차단하였다. 이어서 이상한 승려(異僧)가 가사와 사리 등을 주고 사라졌다고 하고는 자세한 내용은 황룡사 탑편에 실려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찬자 일연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유사』의 황룡사구층탑조에는 이와 연결되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臺山五萬眞身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③ 처음에 법사가 중국 五臺山 문수보살의 眞身을 보고자 하여 신라 선덕왕 대인 貞觀 10년 丙申(<唐僧傳>에서는 12년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三國本史>에 따른다)에 당나라로 들어갔다. 처음에 중국 太和池 가의 문수보살석상이 있는 곳에 이르러 공손히 7일 동안 기도했더니, 꿈에 갑자기 대성이 네 구의 偈를 주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서도 그 네 구의 글은 기억할 수가 있으나 모두가 梵語여서 그 뜻을 전혀 풀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한 승려가 비라금점가사 한 벌과 佛鉢 하나와 佛頭骨 한 조각을 가지고 법사 곁으로 와서는 … 말을 마치자 자기가 가졌던 가사 등 물건을 법사에게 주면서 부탁했다. “이것은 본사 석가세존이 쓰시던 도구이니 그대가 잘 보호해 가지십시오.”⁴⁾

②와 ③의 기록을 비교하면 ②의 기록에서 袈裟와 舍利로 간략하게 언급된 내용이 ③의 기록에서는 비라금점가사, 佛鉢, 佛頭骨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그러나 자장이 사리를 전수한 장소를 ②의 기록에는 淸涼山이라고 밝혔으나 ③의 기록에서는 太和池로 바뀌었고, 문수보살상도 塑像과 石像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자장이 문수보살에게서 받았다는 4 구의 梵偈는 80권본 『화엄경』 권 16 『須彌頂上偈讚品』에 나오는 계송으로 이 범게는 80권본 『화엄경』이 신라에 전래된 8세기 이후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⁵⁾ 따라서 위의 기록은 자장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 윤색된 기록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황룡사계 화엄학승들이 신라 하대에 지방 전교활동의 일환으로 오대산에 진출하여

載)…”(『삼국유사』 권4, 의해5, 慈藏定律條). 이하 『삼국유사』 번역문은 1994년 을유문화사의 이민수의 역주본을 기본으로 일부 가필하였다.

4) “初法師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 以善德王代 貞觀十年丙申(唐僧傳云十二年 今從三國本史) 入唐 初至中國太和池邊石文殊處 虔祈七日 忽夢大聖授四句偈 覺而記憶 然皆梵語 罔然不解 明旦忽有一僧 將緋羅金點袈裟一領 佛鉢一具 佛頭骨一片 到于師邊 … 仍以所將袈裟等 付而囑云 此是本師釋伽尊之道具也 汝善護持…”(『삼국유사』 권3, 탑상4, 臺山五萬眞身條)

5) 김복순, 『新羅華嚴宗研究』, 민족사, 1990, 114쪽.

하대의 오대산 사적을 자장에게 부회한 것이라는 견해가 주목된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기록과 달리 『삼국유사』의 황룡사구층탑조에는 다음과 같이 자장전래 가사와 사리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보인다.

- ④ 貞觀 17년 癸卯(643) 16일에 자장법사는 당나라 황제가 준 佛經·佛像·袈裟·幣帛 등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탑 세울 일을 임금에게 아뢰자 선덕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니…⁷⁾
- ⑤ 자장이 오대산에서 받아 가져온 舍利 100과를 탑 기둥 속과 통도사 戒壇, 또 大和寺 탑에 나누어 모셨으니, 이것은 못에 있는 용의 청에 따른 것이다. (大和寺는 阿曲縣 남쪽에 있다. 지금의 蔚州이니 역시 자장법사가 세운 것이다). 탑을 세운 뒤에 천하가 형통하고 …⁸⁾

먼저 기록 ④의 자장이 전래한 품목에는 사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이 기록에 보이는 袈裟는 여타 기록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비라금점가사가 아니라 『속고승전』에 당 황제가 자장을 위해 하사한 衲衣로 판단된다. 이어서 ⑤의 기록에 오대산에서 가지고 온 사리 100과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대산오만진신조나 전후소장사리조에 보이는 佛頭骨과 佛牙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자장이 전래한 사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록은 다음 전후소장사리조의 기록이다.

- ⑥ 선덕왕 때인 貞觀 17년 癸卯(643)에 자장법사가 당나라에서 佛頭骨과 佛牙, 불사리 100과, 부처님이 입었던 緋羅金點袈裟 한 벌을 가지고 왔다. 그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 탑에 두고, 하나는 大和寺 탑에 두고, 하나는 가사와 함께 통도사 戒壇에 두었으나,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⁹⁾

6) 김복순, 위의 책, 111~125쪽.

7) “…貞觀十七年癸卯十六日 將唐帝所賜經像袈裟幣帛 而還國 以建塔之事聞於上 善德王議於群臣…”(『삼국유사』 권3, 탑상4, 皇龍寺九層塔條).

8) “…慈藏以五臺所授舍利百粒 分安於柱中 并通度寺戒壇 及大和寺塔 以副池龍之請(大和寺在阿曲縣南 今蔚州 亦藏師所創也) 樹塔之後 天地開泰…”(『삼국유사』 권3, 탑상4, 皇龍寺九層塔條).

9) “…善德王代貞觀十七年癸卯 慈藏法師所將佛頭骨 佛牙 佛舍利百粒 佛所著緋羅金點袈裟一領 其舍利分爲三 一分在皇龍塔 一分在太和塔 一分並袈裟在通度寺戒壇 其餘未詳所在…”(『삼국유사』 권3, 탑상4, 前後所將舍利條).

위의 기록에는 여러 자료에 언급되는 불사리 100과를 비롯하여 대산오만진 신조에 언급되었던 비라금점가사와 불두골, 그리고 佛牙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어서 황룡사와 대화사 탑, 통도사 계단 등 불사리의 봉안처를 밝혔지만 불두골과 불아의 봉안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세 사찰에 봉안한 나머지 사리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했으나 아마도 『속고승전』에 기록된 자장이 창건한 寺塔 10여 곳이 그 후보지로 유력할 것이다.

황룡사 구층탑과 대화사 탑, 통도사 계단 이외에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자장이 창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찰은 세 곳이다. 먼저 자장정율조에 기록된 자장이 유학에 앞서 자신의 田園을 내어 창건한 元寧寺가 있으며, 태화지의 용이 바친 枕鴨이 신이를 보였다는 彦陽의 鴨遊寺, 그리고 대산오만진신조에 기록된 淨巖寺 역시 자장이 창건한 사찰로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여러 사료에 비해 ⑥의 기록은 자장전래 사리의 종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전후소장사리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사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한 기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후대에 윤색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특히 불두골과 불아의 경우 후대의 여러 문헌자료에 통도사 계단에 봉안되었다고 기록되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전후소장사리조의 내용 가운데 자장전래 불사리에 대한 기사는 찬자 일연이 통도사에서 수집한 자료와 스님들의 목격담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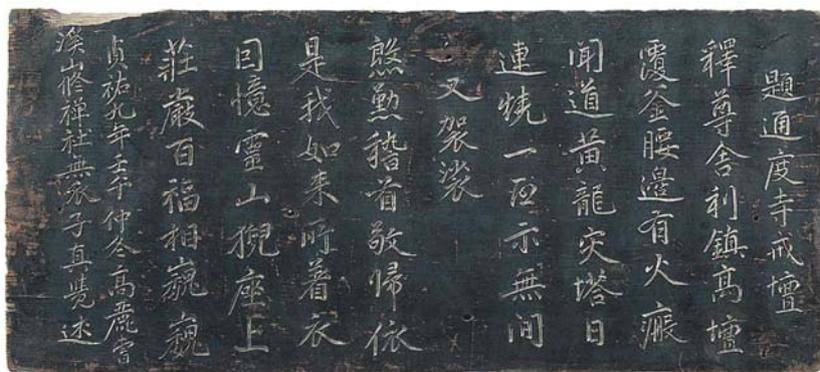
⑦ 속설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 本朝에서 전후로 廉使 두 사람이 와서 계단에 절을 하고 공손히 돌솥을 들어 보았는데, 처음에는 긴 구렁이가 석함 속에 있는 것을 보았고, 다음번에는 큰 두꺼비가 돌 밑에 쪼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로부터는 감히 이 돌을 들어 보지 못했다 한다.¹⁰⁾

위의 기록은 전후소장사리조의 통도사 계단 사리에 대한 기사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목이다. 이 기록은 순서상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지만 廉使라는 관직을 통해 기사의 여러 사건 가운데 가장 늦게 일어난 사건임을 유추할 수 있다. 안렴사는 고려시대 지방관직으로 처음 시행된 시기가 1276년이며, 폐지된 시기는 1389년이다. 따라서 두 안렴사가 계단에 예배하고 돌뚜껑을 들어본

10) “...諺云 昔在本朝 相次有二廉使 禮壇舉石鑊而敬之 前感脩蟒在函中 後見巨蟾蹲石腹 自此不敢舉之...”(『삼국유사』 권3, 탑상4, 前後所將舍利條).

시기는 1276년에서 1389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시기와 맞물린다.

또한 이어지는 기록에 고려 광종 때 황룡사 탑의 화재로 인해 나타난 통도사 계단의 神異에 대한 기록으로 無衣者 慧謙의 시를 인용하였다. 이 시는 貞祐 9년(1222) 혜심이 통도사를 방문하여 지은 시로서 지금도 통도사에 현판으로 전래되고 있다.¹¹⁾(도 1) 이러한 정황을 통해 일연이 통도사를 방문했을 때 현판에 새겨진 혜심의 시를 목격하고 전후소장사리조에 그 일부를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도 1. 無衣子 題通度寺戒壇 현판,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자장이 불사리 100과를 전래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불두골과 불이를 전래했다는 기사가 후대에 윤색된 내용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또 다른 이유는 14세기 이전의 통도사 계단 관련 기록에서 불두골과 불이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후소장사리조의 기록에는 통도사 계단에 봉안된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먼저 古記를 인용하여 “사리 100매를 세 곳에 나누어 봉안했으나 지금은 오직 4매 뿐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앞서 여러 문헌에서 살펴본 자장전래 불사리 100매의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지만 불두골과 불아 관련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도 1235년 상장군 金利生과 시랑 庾碩, 그리고 1264년 이후 원나라 사신들과 고려의 귀족, 승려들이 여러 차례 통도사 계단의 蓋石을 들어 사리를 친견했다는 기록이 이어지지만 공통적으로 4매의 사리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불두골과 불아에 대한 내용은 없다.

11) 장충식, 『한국의 불교미술』, 민족사, 1997, 222~225쪽.

통도사 계단에 佛頂骨, 불아의 등장은 1362년에 공민왕이 俗離寺에 행차해 통도사에 간직해 두었던 佛骨과 사리 및 袈裟를 가져다가 친견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에서 보이기 시작한다.¹²⁾ 그리고 에 洪武 12년(1379)에 통도사 住持 月松스님이 왜적을 피해 자장율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얻어 온 석가여래의 頂骨 하나와 사리 넷, 緋羅金點袈裟 등을 모시고 서울에 왔다는 기록이 있으며,¹³⁾ 이후 조선시대 문헌에 이르기까지 정골과 불아는 보편적으로 기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를 종합하면 자장이 전래한 사리에 포함된 불두골과 불아는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윤색의 배경은 9세기 중반 이후 佛頂骨과 불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리신앙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9세기 중반 이후 사리신앙이 점차 불아와 불정골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문성왕 13년(851) 4월 당나라에 갔던 사신 元弘이 불경과 佛牙를 가져와 왕이 교외로 나가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⁴⁾ 그리고 1010년에 건립된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의 명문에는 統和 27년(1010)에 正骨이 개심사에 이르렀다는 명문이 보인다.¹⁵⁾ 특히 顯宗 12년(1021) 5월에 尙書左丞 李可道를 경주에 보내어 高僊寺의 金羅袈裟와 佛頂骨, 昌林寺의 佛牙를 가져와서 內殿에 두게 하였다는 기록은 당시 불정골과 불아에 대한 신앙이 고려왕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보여준다.¹⁶⁾ 아울러 宣和 원년(1119)에 입공사 鄭克永, 李之美 등이 가지고 온 불아에 얽힌 이야기는 전후소장사리조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불아에 대한 고려왕실의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사리신앙이 불정골과 불아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자장전래 사리에 관한 기록도 오대산 일대의 사찰과 통도사 등 자장율사를 祖師로 모시는 사찰의 주도로 점차 윤색된 것으로 생각된다.

12) 『高麗史』卷40 世家40 恭愍王3, “...丁亥幸俗離寺取觀通度寺所藏佛骨設利袈裟...”

13) “洪武十二年己未秋八月廿又四日 南山宗通度寺住持圓通無礙辯智大師沙門臣月松 奉其寺歷代所藏慈藏入中國所得釋迦如來頂骨一 舍利四 毗羅金點袈裟一 菩提樹茶若干 至京...”(『牧隱集』 牧隱文藁 第3卷, 梁州通度寺釋迦如來舍利之記)

14) “夏四月 隕霜, 入唐使阿滄元弘 齋佛經并佛牙來 王出郊迎之”

15) “上元甲子四十七 統和二十七 庚戌年二月一日 正骨開心寺到...”(황수영, 『한국금석유문』, 혜안, 1999, 220쪽.)

16) “命尙書左丞 李可道 往取慶州 高僊寺金羅袈裟佛頂骨 昌林寺佛牙 並置內殿”(『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12年 5月 戊子)

Ⅲ. 불사리의 친견과 神異

자장전래 불사리가 보인 神異와 사리를 친견한 내력은 주로 통도사 계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불사리의 친견과 신이는 대체로 신앙의 영역에 해당하여 논리적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사리의 신이는 당시 사리신앙의 실상이 반영된 자료이며, 사리 친견에 대한 기사는 간접적으로나마 사리를 봉안 했던 사리장엄구와 계단의 원형을 추정하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도 2)



도 2. 통도사 계단 전경

불사리가 보이는 신이는 다양하지만 스스로 나뉘어져 숫자가 증가하는 自分,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在滅, 광명이 나타나는 放光 등이 대표적이며¹⁷⁾, 통도사 계단에 봉안된 자장전래 진신사리도 주로 이 세 가지 신이를 보인 것으로 기록된다.

- ① 古記에는 이렇게 말했다. “사리 100매를 세 곳에 나누어 두었더니, 이제는 오직 4매 뿐이다. 그것은 숨겨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니 수요가 많고 적은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 또 속설에는 이렇게 말한다. “황룡사 탑이 불타던 날에 (통도사 계단의)돌솔 동쪽에 처음 큰 얼룩이

¹⁷⁾ 진신사리의 神異에 대한 교리적 해석은 오인스님의 논고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오인, 『경전에 보이는 사리관 - 불교 사상과 방편의 시각』, 『백제 사리장엄구와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28~33쪽)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그때는 바로 遼의 應曆 3년 癸丑(953)이요, 본조 光宗 5년으로, 탑이 세 번째로 불타던 때였다.” 曹溪의 無衣子가 시를 남겨 말하기를, “들으니 황룡사탑이 불타던 날, 이어 탄 일면에도 틈 난데가 없었다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¹⁸⁾

먼저 ①의 기사에 보이는 “사리가 숨겨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은 사리의 신이 가운데 在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찍이 백제 무왕이 창건한 제석사 목탑 화재를 기록한 『관세음응험기』에도 보인다. 이어지는 황룡사 구층탑에 화재와 연동하여 통도사 계단의 石鑊에도 그을음이 생겼다는 내용은 두 탑에 봉안된 사리가 모두 자장이 전래한 사리로서 상통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기사는 貞祐 9년(1222)에 무의자 혜심이 통도사를 예방하고 지은 시를 인용한 것이다. 현재 통도사에 현판으로 전래되는 무의자의 시는 ‘題通度寺戒壇’, ‘又袈裟’라는 제목의 2수이다. 일연이 기사에 인용한 내용은 ‘題通度寺戒壇’ 일부에 불과하여 이 현판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¹⁹⁾

② 至元 甲子年(1264) 이후로 원나라 사신과 본국 皇華들, 그리고 사방의 승려들이 서로 몰려들어 참례했으며, 蓋石을 들어보기도 하고 혹은 들지 않기도 했다. 眞身舍利 4매 외에 변신사리가 모래알처럼 부서져서 돌함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상한 향기를 강하게 풍겨 여러 날 동안 없어지지 않는 일이 이따금 있었으니, 이것은 말세에 있는 한 지방의 기이한 일인 것이다.²⁰⁾

위의 기사는 자장이 전래한 진신사리 4매의 自分을 보여주는 신이로 논리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통도사 계단에 봉안된 진신사리가 自分하여 여러 사찰에 유포된 사실은 고려시대 금석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安鼎福이 편찬한 『雜同散異』에 수록된 許氏墓誌銘에는 金賸의 처 허씨(1255~1324)가 남편이 죽은 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고, 丙辰年(1316)에 통

18) “古記稱 百枚分藏三處 今唯四爾 既隱現隨人 多小不足怪也 又顏云 其皇龍寺塔災之日 石鑊之東面始有大班 至今猶然 卽大遼應曆三年癸丑歲也 本朝光廟五戴也 塔之第三災也 曹溪無衣子留詩云 聞道皇龍災塔日 連燒一面示無間 是也”(『삼국유사』 권3, 탑상4, 前後所將舍利條).

19) 장충식, 『한국의 불교미술』, 민족사, 1997, 222~225쪽.

20) “自至元甲子已來 大朝使佐 本國皇華 爭來瞻禮 四方雲水 輻湊來參 或舉 不舉 眞身四枚外 變身舍利 碎如砂礫 現於鑊外 而異香郁烈 彌日不歇者 比比有之 此末季一方之奇事也”(『삼국유사』 권3, 탑상4, 前後所將舍利條).

도사에 가서 사리 12과를 얻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²¹⁾ 그리고 <桐華寺弘眞國尊碑>에도 흥진국존 惠永(1228~1294)이 통도사에서 분사리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통도사 진신사리에서 파생한 사리가 고려 불교계에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甲戌年(1274)에는 불국사로 옮겨갔으며, 병자년(1276)에 양산 통도사로 가서 부처님의 眞身舍利 몇과를 기도 끝에 얻어서 항상 좌우에 모시고 있었는데, 다시 그 사리가 分身하여 여러 개가 되었다. 수시로 누구나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나누어주어도 또한 그 본래의 수효는 전혀 줄어들지 아니하였다.…²²⁾

한편 통도사 계단에 봉안된 불사리의 신이 관련 기사는 대부분 蓋石을 열어서 사리를 친견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②의 기사에는 사리를 침례하기 위해 통도사를 방문한 사부대중이 蓋石을 들어보기도 하고 혹은 들지 않기도 했다고 하여 반드시 사리를 꺼내서 예경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민왕이 1362년 속리사에서 통도사의 사리를 가져다 친견했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광종 때에도 왕의 사리 친견을 위해 계단의 사리를 외부로 발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볼 때, 당시 통도사 계단의 사리봉안 방식은 계폐가 용이한 구조였음을 엿볼 수 있다.²³⁾ 그리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指空和尚이 통도사 계단에 올라 說戒할 때 가사와 사리를 머리에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설계의식을 거행할 사리를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통도사 계단의 사리봉안 방식이 현재와 달리 계폐가 용이한 구조였다면 장장이 창건한 울산 태화사지 인근에서 수습했다고 전하는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의 형태와 특이한 사리공의 구조를 주목할 수 있다.(도 3)

보물 제 441호로 지정된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은 태화사지로 추정되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黃茅山 인근 속칭 “부도골”의 산비탈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울산박물관으로 이전된 십이지상부도는 높이 1.1m로 상단에 깊이 판

21) “…丙辰往通度寺乞舍利得十二枚東下抵鷄林故國鷄林多壯觀故於此盡意而返焉其經由山水無數行旅斯畢…”(허홍식, 『韓國金石全文』中世下, 498, 『金斯醜許氏墓誌』 아세아문화사, 1984, 1128쪽).

22) “…住佛國寺丙子到通度寺乞得舍利數枚常置左右復分身多矣每有乞之者輒與之亦不減數…”(허홍식, 『韓國金石全文』中世下, 473, 『大丘 桐華寺 弘眞國尊眞應塔碑』 아세아문화사, 1984, 1079쪽).

23) 『袞婆稀奇』, 『通度寺誌』, 아세아문화사, 1983, 18~19쪽.



도 3.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울산박물관 소장

감실을 마련하고 그 아래에는 12지신상을 둘러가며 조각하였다. 남면 중앙의 상부에 높이 29cm, 너비 28cm, 깊이 27cm,의 방형에 가까운 감실이 마련되었고, 그 상연은 곡면을 이루었고 내부 바닥은 다시 안으로 경사되었을 뿐 특이한 점은 없다. 감실 주위를 돌아서 홈이 한 줄 파진 것은 배수를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감형은 우리나라 석종형부도에서는 처음 보이는 방식으로 사리구가 장치되었다고 추정된다.²⁴⁾

현재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의 제작시기는 통일신라 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리탑의 기형이나 십이지신상의 조각양식으로 볼 때 고려시대 작품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리공의 구조이다. 이 작품과 유사한 조선시대 석종형 부도의 경우의 사리공은 예외 없이 대좌 중앙이나 석종의 밑면에 마련된다. 일반적인 석종형 부도와 차별되는 태화사지 사리탑 사리공의 위치는 사리장치의 개폐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일반 석종형 부도와 달리 구조적으로 사리공의 개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착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도사 계단의 사리친견 사례로 본다면 태화사지 사리탑 또한 구조적으로 진신사리를 봉안했던 사리탑일 가능성이 있다. <태

²⁴⁾ 황수영, 『울산의 십이지상부도』, 『미술자료』 5, 국립중앙박물관, 1962, 8~10쪽.

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이 태화사 전래유물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장전래 사리를 봉안했던 태화사 탑이 멸실된 이후, 그 사리를 봉안했던 조형물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도사 계단에 봉안된 사리친견에 대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리의 친견과 수계의식은 계단 위에서 거행된다. 충숙왕 26년(1326) 천축의 指空和尚 고려에 입국하여 회암사를 거쳐 통도사 계단에서 설계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기록에 따르면 지공화상은 계단에 올라가 가사와 사리를 머리에 이고 대중들에게 설법했다.²⁵⁾ 이들 기록을 통해 계단의 원형을 유추해 보면 통도사 계단의 원형은 현재의 모습과 달리 단 위에 올라가는 구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통도사 계단의 모습은 2층의 방형기단 위에 석종 모양의 덮개돌이 놓인 석조계단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계단의 사방에는 불좌상을 비롯하여 천인상, 신장상 등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들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중수 과정에서 새롭게 조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계단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석재들 중에 삼각형의 석재에 금강역사상이 새겨져 있는 석재는 원래 금강계단의 부재로 금강계단의 원형복원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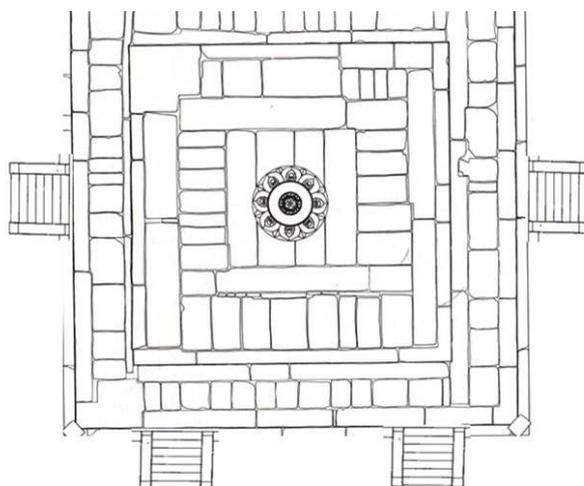
도 4. 통도사 계단의 소맷돌 부재

이들 석재는 금강계단 4방에 설치되었던 층계의 소맷돌 장식으로 판단된다. 하층기단에 새겨진 부조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방에 배치된 5구의 불좌상은 다른 부조상에 비해 넓은 면적에 새겨졌으며, 조각양식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

²⁵⁾“其所會曰 師重上戒壇 頂戴袈裟舍利 謂衆曰 本師之身本師之衣 安邀于戒壇上者 自西竺東至…”(『通度寺誌』, 아세아문화사, 1983, 44쪽).

후대에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있는 10개의 소맷돌 장식과 5구의 불좌상을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5구의 불좌상이 배치된 위치는 원래 계단 위로 올라가는 층계가 위치했던 곳으로, 후대에 층계가 철거되면서 현재의 불좌상으로 대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단을 복원하면 남면에 2개, 그리고 나머지 3면에 층계가 각각 1개씩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5)



도 5. 통도사 계단의 층계 복원도

IV. 자장전래 불사리 관련 조형

창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장이 전래한 불사리와 연관된 건축은 통도사 계단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戒壇이란 戒를 설하는 신성한 장소를 뜻한다. 불교의 율법에 따르면 계단에서는 의식에 따라 계법을 受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승려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 계단을 의지하여 같이 머물며 수행한다고 한다.

초기 불교에서 계단은 지면보다 조금 높게 흙을 모아 단을 만들었던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벽돌이나 돌을 쌓아 단을 만드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義淨이 저술한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는 인도의 계단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여 주목된다. 의정이 기록한 那爛陀寺의 계단은 한 변이 1丈 정도이고 높이는 2척이며, 중앙

에는 소탑(制底)이 있다고 묘사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탑의 형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통상 인도의 복발형탑일 가능성이 높아 통도사 계단의 형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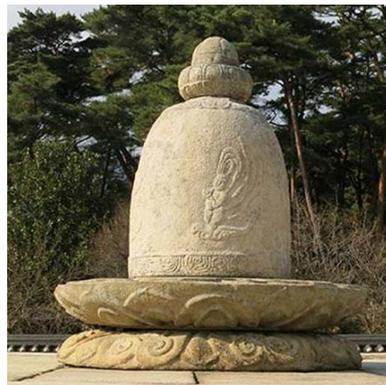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조에는 통도사 계단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① 통도사 계단에는 두 층이 있는데 위층 가운데에는 돌 뚜껑을 덮어서 마치 가마솥을 덮어놓은 것과 같았다.²⁷⁾

위의 기록에 묘사된 계단의 형태는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사방에 다섯 개의 층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현 통도사 계단은 창건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료만으로는 창건당시 원형 추정이 불가능하다. 건축사적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판석을 이용한 가구식기단이 신라에 출현하는 시기는 삼국통일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가구식기단으로 구성된 계단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아마도 창건기의 계단은 전축, 또는 분황사 석탑 기단과 같은 구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①의 기록에서 개석의 형태를 현재의 모습과 같은 ‘石鍾’이 아니라 ‘솥을 덮어놓은 것 같다(石蓋如覆鑊)’라고 표현하였고, 1222년 무의자 혜심의 시에는 ‘覆釜’로 묘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형태는 감은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와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통도사 계단은 상단 중앙에 종 모양의 덮개돌로 인해 석종형사리부도, 석종형부도, 복발형탑, 사리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도 6) 이러한 명칭의 유래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자료로 1404년에 간행된 이색의 『牧隱集』에 ‘覆鐘’이라는 기록이 보인다.²⁸⁾ 『삼국유사』의 ‘覆鑊’ 또는 혜심의 시에 묘사된 ‘覆釜’라는 표현에서 ‘覆鐘’으로 그 형태가 변화한 것을 주목한다면 현재 통도사 계단 개석의



도 6. 통도사 계단의 석종

26) 장충식, 『韓國 石造戒壇 考』, 『불교미술』4, 동국대학교박물관, 1978, 105쪽.

27) “...壇有二級 上級之中 安石蓋如覆鑊...”(『삼국유사』 권3, 답상4, 前後所將舍利條).

28) 『牧隱集』牧隱詩藁 제24권, “舍利人言出釋迦 覆鐘通度自新羅...”

형태는 14세기 후반 중수 이후의 변화된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도사 계단의 원형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유물로는 682년경에 제작된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를 지목할 수 있다.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에 대해서는 계단의 사리기를 참조해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지만, 오히려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가 계단의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²⁹⁾



도 7.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복발형사리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감은사지 사리기와 『계단도경』에 묘사된 계단의 형제를 비교해 보면 사리기는 계단의 형태를 사리기로 변용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계단도경』에는 계단을 땅으로부터 세우되 三重이며 단 위에는 覆釜를 얹어 舍利를 덮고, 북부 위에 無價寶珠을 올려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³⁰⁾ 이는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 기단 위에 배치된 복발형 사리기의 형태와 일치한다.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는 중앙에 배치된 복발형 사리기가 수정사리병을 덮는 구조이다. 그리고 복발형 사리기 위에는 수정과 금동화염장식으로 구성된 보주를 장식하여 『계단도경』의 무가보주를 구체화 했다. 특히 서탑 사리기의

복발형 사리기는 술 형태를 의식한 듯이 밑에 3개의 기대를 부착하였다.(도 7)

또한 『계단도경』에는 상하층 壇身의 네 면에는 나란히 열을 지어 龕窟을 두고, 감굴 안에는 諸神王을 봉안한다고 하였다.³¹⁾ 그리고 상층의 감굴에는 七星神이 배열된다고 하여 통도사 계단 상하층에 부조된 조각상의 도상을 해석하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 기단의 조형과도 연결된다.³²⁾

29) 최효식·이재인, 「중국 북경지역 계단 배치와 형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28(10), 대한건축학회, 2012, 246쪽.

30) “...戒壇從地而起 三重爲相 ... 其後天帝釋又加覆釜形於壇上 以覆舍利 大梵王又以無價寶珠 置覆釜形上...”(『大正新脩大藏經』 권제45 No.1892『關中創立戒壇圖經』808b28-808c06).

31) “...其壇相狀 下之二重以石砌累 如須彌山王形 上下安色道 四面壇身並列龕窟 窟內安諸神王...”(『大正新脩大藏經』 권제45 No.1892『關中創立戒壇圖經』809a5-809a7).

32) “...兩層色道內龕窟中神 經中大多 今依孔雀王經 明七星神 依方守護 其上層中安窟既少 可列七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의 기단은 비록 단층이지만 4면에는 『계단도경』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감실이 마련되어 있다. 감실은 각 면에 2개씩 총 8개이며, 좌측과 우측의 감실을 구분하여 좌상의 천인상과 신장상이 봉안되는 양상은 4면이 모두 동일하다. 이들 조각상은 통상적으로 천인상과 신장상이라 불리지만 향후 신왕과 칠성신일 가능성에 대한 도상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감은사와 동시기에 건립된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 기단 녹유신장상의 조영과 배치방식 역시 계단의 형제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 가운데 동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의 경우 기단 상단에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단도경』에는 2층 즉 상층기단의 네 모서리에 大神이 있는데, 이른바 사천왕으로 항상 불법과 중생을 수호한다는 기록이 보인다.³³⁾

1994년에 발견된 감은사지 동탑 사리기의 사천왕상은 현재 기단 상단에 네 방위에 맞춰 배치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출토 당시 사천왕상이 수습된 위치와 고대 사천왕상 배치 사례에 볼 때, 그 원형은 네 모서리에 배치되었던 것이 분명하다.³⁴⁾ 따라서 『계단도경』의 기록은 감은사지 동탑 사리기의 원형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자 감은사지 사리기의 기형이 계단의 형태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의 명칭은 殿閣形을 시작으로 喪輿形, 樓閣形, 寶殿形, 牀帳形, 戒壇形, 寶帳形, 寶閣形, 靈帳形 등 연구자들마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명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명칭은 喪輿形과 戒壇形을 제외하고 각각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는 사리기 상단의 천개를 주목하여 중국에서 5세기 이후 사리봉안 형식으로 보장형태에 대한 문헌과 경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寶帳形舍利器이라는 명칭을 많이 따르고 있다.³⁵⁾ 그러나 『계단도경』에도 보장의 장엄과 유사한 내용으로 “단 위의 구멍에 帳竿을 설치하고, 휘장으로 아름답게 장엄한다”는 언급이 보인다.³⁶⁾

星神 配坐窟中 然二十八星神出沒增減…”(『大正新脩大藏經』 권제45 No.1892 『關中創立戒壇圖經』810a01-810a07).

33) “…第二層上四角大神 所謂四天王也 常護佛法及以衆生 豈唯壇塔…”(『大正新脩大藏經』 권제45 No.1892 『關中創立戒壇圖經』809c01-809c02)

34) 한정호,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보장형사리기 복원재고』, 『신라문화』3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143~147쪽.

35) 金妍秀, 『韓國舍利器에서의 ‘寶帳’ 형식에 대한 考察』, 『美術資料』65, 2000.

36) “…上安帳竿於孔中也 帳之莊嚴隨力所辦…”(『大正新脩大藏經』 권제45 No.1892 『關中創立戒壇圖經』810a28-810b01)



도 8. 금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는 『계단도경』에서 묘사한 계단의 모습과 상통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당시 유행하는 계단의 형태를 사리기로 변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장이 창건한 통도사 계단의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도 8)

끝으로 1235년 상장군 金利生 일행이 통도사 계단에 봉안된 사리를 친견하는 전후소장사리조의 기사는 간접적이지만 계단의 사리장치를 엿볼 수 있다.

② 요새 上將軍 金公 利生과 庾侍郎 碩이 고종의 명령을 받아 江東을 지휘할 때 符節을 가지고 절에 와서 돌을 들고 절하려고 하니 절의 중은 지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난처하게 여겼다. 두 사람이 군사를 시켜 돌을 들게 하니 그 속에 작은 돌함이 있고, 함 속에는 유리통이 들어 있고, 통 속에는 사리가 단지 4매 뿐이었다. 이것을 서로 돌려보면서 경례했는데 통에 조금 상한 곳이 있었다. 이에 庾公이 마침 가지고 있던 수정함 하나를 시주하여 함께 간수해 두게 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이때는 강화도로 서울을 옮긴 지 4년이 되던 을미년(1235)이었다.³⁷⁾

위의 기록에서 계단의 덮개들을 들자 그 속에 작은 석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석함은 아마도 경주 분황사 석탑의 석함이나 칠곡 송림사 전탑의 석함과 같이 사리공 역할을 하는 유형의 석함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석함에 이어서 바로 사리를 담은 내핵용기에 해당하는 琉璃筒이 등장하는데, 이는 자장 창건당시의 사리장엄 방식과 비교하여 유리통 이외의 사리용기가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자세한

³⁷⁾ “…近有上將軍金公利生 庾侍郎碩 以高廟朝受旨 指揮江東 仗節到寺 擬欲舉石瞻禮 寺僧以往事難之 二公令軍士固舉之 內有小石函 函囊之中 貯以琉璃筒 筒中舍利只四粒 傳示瞻敬 筒有小傷裂處 於是庾公適蓄一水精函子 遂奉施兼藏焉 識之以記 移御江都四年乙未歲也”(『삼국유사』 권 3, 탑상4, 前後所將舍利條).

언급을 생략한 것으로 짐작된다.

자장의 건의로 건립되었다고 하는 황룡사 구층탑 사리장엄구는 후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중수 과정에서 교란되어 정확한 원형을 알 수 없다. 다만 찰주본기에 기록된 “금은의 높은 좌대 위에 유리사리병이 안치되어 있다(有金銀高座於其上安舍利琉璃瓶)”는 기록을 통해 내핵용기는 통도사 계단과 동일한 유리 재질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황룡사 구층탑 사리장엄구를 토대로 유추되는 창건 당시의 사리장치는 밖에서 부터 금동사리외함 - 은제사리함 - 금제사리함 - 금동연화좌형구 위의 사리병 순서로 구성된 4중구조로 보고 있다.³⁸⁾ 따라서 자장 창건당시 통도사 계단의 사리장치도 이에 준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서 유리통에 조금 손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庾碩이 가지고 있던 수정함을 이를 시주하여 함께 봉안하게 했다는 대목은 사리봉안을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용기가 사리기로 재활용 되는 사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처럼 원래 제작용도와 다르게 사리장엄 용도로 전환된 사례는 대구 동화사 금당암 서삼층석탑과 봉화 축서사 삼층석탑 사리기 등 통일신라 납석제사리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³⁹⁾

V. 맺음말

지금까지 자장율사가 전래한 불사리에 대해 『삼국유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교신앙의 관점에서 사리는 믿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리의 진위나 사리가 나타낸 신이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리신앙의 변화는 불교계의 동향과 불교미술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자장전래 불사리 관련 『삼국유사』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내용의 일부는 후대에 윤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자장이 전래한 사리의 종류는 원래 100매의 진신사리가 중심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佛頭骨과 佛牙 추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윤색의 배경으로는 9세기 중반부터 13세기에 걸쳐

³⁸⁾ 한정호, 『황룡사찰주본기와 불사리장엄 연구』, 『미술자료』 77, 국립중앙박물관, 2008, 24~25쪽.

³⁹⁾ 한정호, 『통일신라시대 납석제사리호의 발생과 전개에 대한 고찰』, 『고문화』 7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1, 70~74쪽.

佛頂骨과 佛牙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리신앙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통도사 계단에 봉안된 진신사리 친견과 관련된 여러 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도사 계단의 蓋石은 원래 개폐가 용이한 구조였으며, 사리를 꺼내서 수계의식을 거행한 사례도 확인된다. 그리고 의식과 관련된 기록을 단서로 통도사 계단을 조사한 결과 원래 계단 위로 올라가기 위한 층계가 5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울산 태화사지 인근에서 발견된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은 일반 석종형 부도와 달리 구조적으로 사리공의 개폐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통도사 계단의 사리친견 사례로 본다면 태화사지 사리탑 또한 구조적으로 진신사리를 봉안했던 사리탑일 가능성이 있다.

통도사 계단 石蓋의 형태는 13세기 후반까지 가마솥(釜, 鑊) 모양으로 묘사되다가 14세기 후반 이후에는 현재의 모습과 같은 石鍾으로 표현이 바뀐다. 이를 통해 통도사 계단은 14세기에 이르러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으며, 중수 이전 개석의 형태는 감은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치와 유사한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형태의 근원과 명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감은사 사리기는 『계단도경』에 묘사된 계단의 형태를 사리기로 변용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불사리는 탑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예배의 대상이다. 불정골과 금라가사가 봉안되었던 고선사와 불아가 봉안되었던 昌林寺의 특이한 가람배치의 사례로 본다면 탑에 봉안되는 사리가 당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람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투고일 2017년 8월 2일 |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30일 ■

참고문헌

『續高僧傳』

『關中創立戒壇圖經』

『三國史記』

『三國遺事』

『牧隱集』

『高麗史』

김복순, 『新羅華嚴宗研究』, 민족사, 1990.

김연수, 『韓國舍利器에서의 ‘寶帳’ 형식에 대한 考察』, 『美術資料』65, 2000.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 76, 한국사연구회, 1992.

_____, 『삼국유사 속의 삼국유사 - 전후소장사리조』,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노재성, 『자장율사의 생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10, 중앙승가대학교, 2003.

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오인, 『경전에 보이는 사리관 - 불교 사상과 방편의 시각』,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이난영,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일지사, 1992.

장충식, 『한국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불교미술사학』1, 불교미술사학회, 2003

_____, 『한국의 불교미술』, 민족사, 1997.

_____, 『韓國石造戒壇考』, 『불교미술』4, 동국대학교박물관, 1979.

주경미, 『남송대 정치변동과 불사리 장엄』, 미술사와 시각문화9, 2010.

최효식·이재인, 『중국 북경지역 계단 배치와 형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학회 논문집』28(10), 대한건축학회, 2012.

한정호, 『황룡사찰주본기와 불사리장엄 연구』, 『미술자료』 77, 국립중앙박물관, 2008.

_____,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보장형사리기 복원재고』, 『신라문화』3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아세아문화사, 1984.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혜안, 1999.

_____, 『울산의 십이지상부도』, 『미술자료』 5, 국립중앙박물관, 1962.
『通度寺誌』, 아세아문화사, 1983.

Abstract

Review on Record of 『Samkukyusa(History of Three Kingdoms)』 on Bulsari Introduced by Monk Jajang

Han, Joung-Ho

Bulsari (Buddha's sarira) that was introduced by Monk Jajang from Tang Dynasty is the only case known with its place of enshrinement from the sarira of Sakyamuni that is handed down to Korea. Furthermore, it is a valuable material that may display the trend of Bulsari faith and Buddhist art of Korea with its rich bibliographical data with respect to the process after its introdu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cord of 『Samkukyusa』 with respect to Bulsari introduced by Jajang, part of the contents is known to be embellished at a later time. In particular, types of sariras that brought in by Jajang was mainly the sarira of 100 pieces originally, but following the flow of time, the Buldugol (Buddha's skull) and Bulah (Buddha's tooth) were seemed to be added. And as for the background of such embellishment, it is presumed to be the change of sarira faith revised on the basis of the Buldugol (Buddha's skull) and Bulah (Buddha's tooth) from the mid-9th century to 13th century. As a result of analyzing a number of records related to the personal observation of the sarira where it is enshrined on Tongdosa stairs, the stone cover of Tongdosa stairs is in the structure with easier opening and closing and it is confirmed with the cases of carrying out the Sugye ceremony by taking out the sarira. And, as a result of surveying Tongdosa stairs with the cue for consciousness related record, it was able to disclose the fact to allocate the stairs to climb up the original steps in 5 places. And, <Taehwasaji Sipijisang Saritap> that was discovered around Taehwasaji in Ulsan

shows the characteristics that opening and closing of sarigong would be easy structurally that is different from the ordinary stone-bell shaped budo (pagoda where sarira or bones of priest is kept). Looking into the cases of Tongdosa stairs and personal observation of sarira, the Taehwasaji Saritap may have the possibility to be the saritap where the sarira is enshrined in its structure.

Lastly, the type of Tongdosa stairs stone cover was depicted in the kettle (Boo, Hoek) shape until the later time of the 13th century and then the expression is changed as a stone-bell shape as it is shown for the present appearance in the later period of the 14th century. Through this effort, Tongdosa stairs had massive heavy repairing in the 14th century, and the shape of the stone cover prior to repairing could be assumed as similar shape with the sarira system discovered in the 3-story stone pagoda of Gameunsaji. And, the Gameunsa Sarigi that is continued with disputes on its origin and name displays to modify the type of stairs depicted in 『Gyedandogyong』 into the sarigi.

Key Words : Jajang, sarira of Sakyamuni, Bulah(Buddha's tooth), Tongdosa, Buldugol (Buddha's skull), Gyedan(ordination platform), sarira reliquary, Samkukyusa